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삼위일체 제목 : 우리의 원래 본질 성경: 창세기1장 26-31절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1:26-31)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음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충만해야 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그 저주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또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수많은 땅은 소실하였으며,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 되었다. 또한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 또 모든 열매를 먹도록 지음받았지만, 홍수로 인해서 육식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인간의 수명이 1/10로 줄어들었으며, 심지어는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따먹지 못하게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적어도 3대까지는 가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또한 가장 중요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 즉 이 상태로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은 원래 본질에서 너무 동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는 원래 자신의 모습에서 많이 다른 모습이다.(성형 때문이 아니다. 성형으론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

하나님도 가만있지 않으시고 가장 확실한 회복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계획하시고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완벽한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며 저들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자신과 함께 지옥에 가야 한다며 고발하였다. 심지어는 완벽한 상황이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틀림없이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 거렸다.(이 내용에 대한 주제로는 욥기서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람의 타락은 필연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위하여 가장 선한 선택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상인 자유의지를 심어주셨다.

다만, 인간은 한계성을 지닌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조건 때문에 악을 금하신 것이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피조물이기 때문에만 붙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악을 범할수도 있는데, 죄를 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우리를 휘방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장 정의롭고 분명하게 처리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유혹이 아닌 스스로의 결단으로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 그래서 지극히 어려운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구원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다.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물론 이것은 시작이고, 가능성이다.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마귀와의 전쟁이 남아 있는 것이다.(범인의 체포와 심문과 재판, 그리고 형벌이 남아있다.) 그러나 구원은 역시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

다만 하나님은 어렵고 어려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결정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함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서 면류관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떠난

자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죽은 자들이어서, 짐승들과 다름없는 존재이거나, 심지어는 짐승들보다 더 추악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103:14)

또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고 죄에 머물기 위해서 마귀를 선택하는 자들을 방치하셨다.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1:28-32)

그러나 원래 우리의 본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자였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며 너는 죄인이며 저주를 받은 자이며, 결국 지옥에 가도록 운명지워진 자이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무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대신 마귀에게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왜 타락하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

세상에 죄가 많아서 일까?

아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이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죄의 사슬에 끌려간다. 본래 모습이 그렇다 해도, 인간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혼 없는 본래 모습만 보지 말고, 영혼이 있는 원래 모습을 소망해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려낸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결사각오로 죄와 한판승부를 벌여야 하는가?

아니다. 자신의 원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거지옷을 입고 있는 왕자는 결코 거지처럼 살지 않는다.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얼마든지 거지로 다시 돌아가지만, 거지옷을 입은 왕자는 설령 왕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그는 결코 거지처럼 살지는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왕자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악 투성이인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

짧은 인생을 즐길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기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짧은 인생임을 머지않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험준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 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사역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도록 하셨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막10:29)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10:30)

<찬양예배>

주제:종말론 제목: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12:1-계12:17)